

인덱스	제목	작가	출판사	독서상태	생성일	독서 시작	독서 종료	독서 중단
1	정재승의	정재승	어크로스	읽은 책	2018.3.24		2018.3.24	
2	정재승의	정재승	어크로스	읽은 책	2018.3.25		2018.3.25	
3	골든아워	이국종	흐름출판	읽은 책	2018.5.19		2018.5.19	
4	골든아워	이국종	흐름출판	읽은 책	2018.5.19		2018.5.19	
5	하늘과 바다	윤동주	더스토리	읽은 책	2018.6.16		2018.6.16	
6	짧고 쉽게	스티븐 호	까치글방	읽은 책	#####		#####	
7	위대한 설	스티븐 호	까치글방	읽은 책	#####		#####	
8	스티븐 호	스티븐 호	동아시아	읽은 책	#####		#####	
9	호킹의 빅	스티븐 호	까치	읽은 책	#####		#####	
10	김상욱의	김상욱	사이언스북	읽은 책	2019.6.22		2019.6.22	
11	언어의 온	이기주	말글터	읽은 책	2019.7.13		2019.7.13	
12	열두 발자	정재승	어크로스	읽은 책	2019.8.17		2019.8.17	
13	두 도시 이	찰스 디킨	더클래식	읽은 책	2019.9.12		2019.9.12	
14	어디서 살	유현준	을유문화사	읽은 책	#####		#####	
15	떨림과 울	김상욱	동아시아	읽은 책	#####		#####	
16	1.4킬로그	정재승	정 사이언스북	읽은 책	#####		#####	
17	지적 대화	채사장	한빛비즈	읽은 책	#####		#####	
18	지적 대화	채사장	한빛비즈	읽은 책	#####		#####	
19	지적 대화	채사장	웨일북	읽은 책	#####		#####	
20	지적 대화	채사장	웨일북	읽은 책	#####		#####	
21	도시는 무	유현준	을유문화사	읽은 책	2020.1.10		2020.1.10	
22	도시는 무	유현준	을유문화사	읽은 책	2020.1.15		2020.1.15	
23	공간이 만	유현준	을유문화사	읽은 책	2020.1.21		2020.1.21	
24	어디서 살	유현준	을유문화사	읽은 책	2020.1.23		2020.1.23	
25	Never Let	가즈오 이	Vintage	읽은 책	2020.6.27		2020.6.27	
26	Wuthering	에밀리 브	OxfordU.K	읽은 책	2020.7.18		2020.7.18	
27	시선으로	정세랑	문학동네	읽은 책	2020.8.19		2020.8.19	
28	우리가 빛	김초엽	허블	읽은 책	2020.8.22		2020.8.22	
29	보건교사	정세랑	민음사	읽은 책	2020.12.9		2020.12.9	
30	어딘가 상	켄 리우	황금가지	읽은 책	#####		#####	
31	지적 대화	채사장	웨일북(wh	읽은 책	#####		#####	
32	브람스를	프랑수아2	민음사	읽은 책	#####		#####	
33	이야기의	월 스토	흐름출판	읽은 책	#####		#####	
34	브람스를	프랑수아2	민음사	읽은 책	2021.1.6		2021.1.6	
35	어떤 물질	천선란	아작	읽은 책	2021.2.14		2021.2.14	
36	얼마나 닮	김보영	아작	읽은 책	2021.2.14		2021.2.14	
37	밤의 얼굴	황모과	허블	읽은 책	2021.2.21		2021.2.21	
38	천 개의 파	천선란	허블	읽은 책	2021.3.7		2021.3.7	
39	우리가 사	유선애	한겨레출판	읽은 책	2021.3.7		2021.3.7	
40	사이보그	김초엽	김 사계절	읽은 책	2021.3.7		2021.3.7	
41	목소리를	정세랑	아작	읽은 책	2021.3.8		2021.3.8	
42	기파	박해울	허블	읽은 책	2021.3.8		2021.3.8	
43	지구 끝의	김초엽	자이언트북	읽은 책	2021.12.5	2021.9.4	2021.9.4	
44	방금 떠나	김초엽	한겨레출판	읽은 책	2021.12.5	#####	#####	
45	행성어 서	김초엽	마음산책	읽은 책	2021.12.5	2021.11.6	2021.11.6	
46	놀이터는	김초엽	배 자이언트북	읽은 책	2021.12.5	2021.9.4	2021.9.4	
47	피프티 피	정세랑	창비	읽은 책	2021.12.5	#####	#####	
48	재인 재욱	정세랑	은행나무	읽은 책	2021.12.5	#####	#####	
49	언니에게	정세랑	김 창비	읽은 책	2021.12.5	#####	#####	

50	밝은 밤 (초 최은영	문학동네	읽은 책	2021.12.5	#####	#####
51	미드나잇 매트 헤이	인플루엔스	읽은 책	2021.12.5	2021.5.22	2021.5.22
52	참을 수 없 밀란 쿤데	민음사	읽은 책	2021.12.5	2021.9.5	2021.9.5
53	대불호텔의 강화길	문학동네	읽은 책	2021.12.5	#####	#####
54	유령해마 (문목하	아작	읽은 책	2021.12.5	2021.2.20	2021.2.20
55	뼈의 방 (발리엔첸	현대지성	읽은 책	2021.12.5	2021.7.17	2021.7.17
56	실크 스타 케이트 쇼	문학동네	읽은 책	2021.12.5	2021.3.20	2021.3.20
57	우리는 이 천선란 박	허블	읽은 책	2021.12.5	2021.3.20	2021.3.20
58	프로젝트 앤디 위어	알에이치	읽은 책	2021.12.5	2021.7.3	2021.7.3
59	마션 (최신 앤디 위어	알에이치	읽은 책	2021.12.5	2021.7.4	2021.7.4
60	아르테미 앤디 위어	알에이치	읽은 책	2021.12.5	2021.7.5	2021.7.5
61	키르케 (매 매들린 밀	이봄	읽은 책	2021.12.5	2021.7.17	2021.7.18
62	아킬레우스 (매들린 밀	이봄	읽은 책	2021.12.5	2021.7.10	2021.7.11
63	바늘과 가 구병모	현대문학	읽은 책	2021.12.5	2021.5.8	2021.5.8
64	아가미 (구 구병모	위즈덤하	읽은 책	2021.12.5	2021.4.17	2021.4.17
65	파과 구병모	위즈덤하	읽은 책	2021.12.5	2021.4.18	2021.4.18
66	자기만의 버지니아	민음사	읽은 책	2021.12.5	2021.5.15	2021.5.15
67	지령이 울 박완서	민음사	읽은 책	2021.12.5	2021.2.20	2021.2.20
68	천문학자는 심채경	문학동네	읽은 책	2021.12.5	2021.3.13	2021.3.13
69	나나 (소설 이희영	창비	읽은 책	2021.12.5	#####	#####
70	눈으로 만 최은미	문학동네	읽은 책	2021.12.5	2021.7.24	2021.7.24
71	연년세세 (황정은	창비	읽은 책	2021.12.5	2021.2.13	2021.2.13
72	궤도의 밖 전삼혜	문학동네	읽은 책	2021.12.5	2021.5.29	2021.5.29
73	패싱 (Passi 넬라 라슨	문학동네	읽은 책	#####	#####	#####
74	므레모사 (김초엽	현대문학	읽은 책	#####	#####	#####
75	그리고 아 아가사 크	황금가지	읽은 책	2022.1.6	2022.1.6	2022.1.6
76	잔류 인구 엘리자베	푸른숲	읽은 책	2022.1.10	2022.1.10	2022.1.10
77	수학이 필 김민형	인플루엔스	읽은 책	2022.1.10	#####	#####
78	역사를 품 김민형	21세기북	읽은 책	2022.1.10	2022.1.10	2022.1.10
79	소크라테스 에릭 와이	어크로스	읽은 책	2022.1.14	2022.1.14	2022.1.18
80	책의 말들 김겨울	유유	읽은 책	2022.2.18	2022.2.17	2022.2.18
81	횡설수설 고구레 다	갈매나무	읽은 책	2022.2.18	2022.2.25	2022.2.25
82	군주론 마키아벨리	자화상	읽은 책	2022.3.2	2022.3.2	2022.3.2
83	오만과 편 제인 오스	문학동네	읽은 책	2022.3.6	2022.3.4	2022.3.5
84	공정하다는 마이클 샌	와이즈베	읽고 있는	2022.3.6	2022.3.4	
85	데미안 (세 헤르만 헤	민음사	읽은 책	2022.3.19	2022.3.19	2022.3.19
86	페스트 (세 알베르 카	문학동네	읽은 책	2022.3.27	2022.3.27	2022.3.27
87	연금술사 (파울로 코	문학동네	읽은 책	2022.3.30	2022.3.30	2022.3.30
88	젊은 ADHD 정지음	민음사	읽은 책	2022.4.2	2022.4.2	2022.4.2
89	법 좀 아는 이웃집 변	크루	읽은 책	2022.4.6	2022.4.6	2022.4.6
90	독서의 기 김겨울 (지	초록비책	읽은 책	2022.4.10	2022.4.10	2022.4.10
91	제법 나를 권민경 김	테오리아	읽은 책	2022.4.10	2022.4.10	2022.4.10
92	밤에 찾아 천선란 (지	안전가옥	읽은 책	2022.4.11	2022.4.11	2022.4.11
93	매우 혼자 김개미 김	글항아리	읽은 책	2022.4.12	2022.4.12	2022.4.12
94	지구인만 정세랑 (지	위즈덤하	읽은 책	2022.4.12	2022.4.12	2022.4.12
95	요즘 사는 김겨울 김	위즈덤하	읽은 책	2022.4.17	2022.4.16	2022.4.17
96	럭키 드로 드로우앤	다산박스	읽은 책	2022.4.17	2022.4.17	2022.4.17
97	겉내지 않 이연 (지	은 미술문화	읽은 책	2022.4.18	2022.4.18	2022.4.18
98	다섯 번째 김보영 (지	아작	읽은 책	2022.4.19	2022.4.19	2022.4.19
99	타이탄의 팀 페리스	토네이도	읽은 책	2022.4.23	2022.4.23	2022.4.23

100	작별하지	한강 (지은 문학동네	읽은 책	2022.4.24	2022.4.24	2022.4.24
101	대도시의	박상영 (지 창비	읽은 책	2022.4.27	2022.4.27	2022.4.27
102	1차원이	도 박상영 (지 문학동네	읽은 책	2022.4.27	2022.4.27	2022.4.27
103	한 게으른	최승자 (지 난다	읽은 책	2022.4.27	2022.4.27	2022.4.27
104	이방인	알베르 카뮈 (민음사	읽은 책	2022.4.30	2022.4.30	2022.4.30
105	떠난 후에	김새별 전 청림출판	읽은 책	2022.5.12	2022.5.12	2022.5.12
106	피라네시	수재나 클 (흐름출판	읽은 책	2022.5.12	2022.5.12	2022.5.12
107	관내분실	: 김상규 (지 누하	읽은 책	2022.5.30	2022.5.30	2022.5.30
108	종이 동물	켄 리우 (지 황금가지	읽은 책	2022.5.30	2022.5.30	2022.5.30
109	철의 시대	J. M. 쿣시 (문학동네	읽은 책	2022.6.18	2022.6.18	2022.6.18
110	이토록 찬	김문정 (지 흐름출판	읽은 책	2022.6.18	2022.6.18	2022.6.18
111	우리에게	조해진 (지 마음산책	읽은 책	2022.6.18	2022.6.18	2022.6.18
112	침묵의 봄	레이첼 카 (에코리브르	읽은 책	2022.6.22	2022.6.22	2022.6.22
113	환한 숨	조해진 (지 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6.24	2022.6.24	2022.6.24
114	아무튼 피	김겨울 (지 제철소	읽은 책	2022.6.25	2022.6.25	2022.6.25
115	저주토키	(정보라 (지 아작	읽은 책	2022.6.25	2022.6.25	2022.6.25
116	퀸스 갬빗	월터 테버 (연필	읽은 책	2022.7.4	2022.7.4	2022.7.4
117	출발선 뒤	박삼새 (지 세미콜론	읽은 책	2022.7.4	2022.7.4	2022.7.4
118	잠이 부족	박솔 (지은 궁리	읽은 책	2022.7.6	2022.7.6	2022.7.6
119	물고기	는 (지 룰루 밀러 곰출판	읽은 책	2022.7.7	2022.7.7	2022.7.7
120	교실 밖에	임창환 김 Mid (엠아0	읽은 책	2022.7.11	2022.7.11	2022.7.11
121	수브다나	의 김초엽 (지 밀리의 서	읽은 책	2022.7.13	2022.7.13	2022.7.13
122	데이터 리	강양석 (지 이콘	읽은 책	2022.7.14	2022.7.14	2022.7.14
123	어느 책 수	재영 책수 (지 위즈덤하	읽은 책	2022.7.15	2022.7.15	2022.7.15
124	보바리 부	귀스타브 (지 살림	읽은 책	2022.7.15	2022.7.15	2022.7.15
125	김상욱의	김상욱 (지 동아시아	읽은 책	2022.7.20	2022.7.20	2022.7.20
126	중력의 임	할 클레멘 (지 아작	읽은 책	2022.7.20	2022.7.19	2022.7.19
127	1일 1로그	브라이언 (지 인사이트	읽은 책	2022.7.20	2022.7.20	2022.7.20
128	이토록 뜻	리사 펠드 (지 더퀘스트	읽은 책	2022.8.2	2022.8.2	2022.8.2
129	노랜드	천선란 (지 한겨레출판	읽은 책	2022.8.9	2022.8.8	2022.8.8
130	모든 죽음	(강신몽 (지 이다박스	읽은 책	2022.8.11	2022.8.11	2022.8.11
131	빅데이터	의 박성현 (지 박 자유아카	읽은 책	2022.8.12	2022.8.12	2022.8.12
132	매일을 헤	(이연 (지 푸른숲	읽은 책	2022.8.15	2022.8.15	2022.8.15
133	하루 한 장	보담 (지 비타박스	읽은 책	2022.8.15	2022.8.14	2022.8.14
134	이 시대의	최승자 (지 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8.15	2022.4.28	2022.4.28
135	연인들	최승자 (지 문학동네	읽은 책	2022.8.15	2022.4.28	2022.4.28
136	쓸쓸해서	최승자 (지 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8.15	2022.4.27	2022.4.27
137	도움받는	백은선 (지 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8.15	2022.4.29	2022.4.29
138	나는 내가	백은선 (지 문학동네	읽은 책	2022.8.15	2022.4.30	2022.4.30
139	왜냐하면	이제니 (지 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8.15	2022.5.1	2022.5.1
140	그리하여	이제니 (지 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8.15	2022.5.1	2022.5.1
141	우리가 세	병하민 라 (지 문학동네	읽은 책	2022.8.17	2022.8.17	2022.8.17
142	가장 무서	곽재식 (지 요다	읽은 책	2022.8.18	2022.8.18	2022.8.18
143	빅데이터	의 박인근 (지 흥 제이펍	읽은 책	2022.8.22	2022.8.22	2022.8.22
144	돌이킬 수	문목하 (지 아작	읽은 책	2022.8.24	2022.8.24	2022.8.24
145	아라의 소	정세랑 (지 안온박스	읽은 책	2022.8.29	2022.8.29	2022.8.29
146	아노말리	에르베 르 (지 민음사	읽은 책	2022.8.31	2022.8.31	2022.8.31
147	새들이 모	리처드 파 (지 알에이치	읽은 책	2022.9.1	2022.9.1	2022.9.1
148	빅데이터	의 조성준 (지 김 길벗	읽은 책	2022.9.2	2022.9.2	2022.9.2
149	루	김 투이 (지 윤문학과지성	읽은 책	2022.9.3	2022.9.3	2022.9.3

150	만	김 투이	윤문학과지식	읽은 책	2022.9.4	2022.9.4	2022.9.4
151	빛의 물리	EBS MEDIA	해나무	읽은 책	2022.9.5	2022.9.5	2022.9.5
152	별새 - 199	김보라	최 arte(아르	읽은 책	2022.9.7	2022.9.7	2022.9.7
153	책과 우연	김초엽	열림원	읽은 책	#####	#####	#####
154	진동새와	한국타이프	작업실유	읽은 책	#####	#####	#####
155	단순한 열	아니 에르!	문학동네	읽은 책	#####	#####	#####
156	엔트로피	제러미 리	세종연구	읽은 책	#####	#####	#####
157	생명 설계!	매트 리들	반니	읽은 책	#####	#####	#####
158	컨버티드 :	닐 호인	이더퀘스트	읽은 책	2023.1.16	2023.1.16	2023.1.16
159	타이탄의	커트 보니	문학동네	읽은 책	2023.2.1	2023.1.25	2023.2.1
160	퀴런틴	그렉 이건	허블	읽은 책	2023.2.1	2023.1.23	2023.2.1
161	놀이와 인	로제 카이	문예출판	읽은 책	2023.4.29	2023.4.12	2023.4.12
162	그림으로!	홍성욱	책세상	읽은 책	2023.4.29	2023.4.13	2023.4.13
163	빅 히스토	데이비드	웅진지식	읽은 책	2023.4.29	2023.4.19	2023.4.19
164	클라우드 :	클라우드	메가스터	읽은 책	2023.4.29	2023.4.22	2023.4.22
165	우리는 각	데이비드	(알에이치	읽은 책	2023.4.29	2023.4.28	2023.4.28
166	위험사회 -	조재형	에이지21	읽은 책	2023.4.29	2023.4.29	2023.4.29
167	트로피컬	조예은	한겨레출	읽은 책	2023.4.29	2023.4.23	2023.4.23
168	설득의 심	로버트 치	(21세기북	읽은 책	2023.5.5	2023.5.2	2023.5.5
169	당신 엄마	박서련	민음사	읽은 책	2023.5.5	2023.5.5	2023.5.5
170	다른 딸	아니 에르!	1984Books	읽은 책	2023.5.8	2023.5.7	2023.5.7
171	진정한 장	아니 에르!	1984Books	읽은 책	2023.5.8	2023.5.8	2023.5.8
172	사진의 용	아니 에르!	1984Books	읽은 책	2023.5.13	2023.5.13	2023.5.13
173	세월	아니 에르!	1984Books	읽은 책	2023.5.13	2023.5.13	2023.5.13
174	빈 옷장 -	아니 에르!	1984Books	읽은 책	2023.5.16	2023.5.16	2023.5.16
175	한 여자	아니 에르!	열린책들	읽은 책	2023.5.16	2023.5.16	2023.5.16
176	1984	조지 오웰	민음사	읽은 책	2023.5.18	2023.5.18	2023.5.18
177	동물농장	조지 오웰	민음사	읽은 책	2023.5.20	2023.5.20	2023.5.20
178	만들어진	리처드 도	김영사	읽은 책	2023.5.25	2023.5.25	2023.5.25
179	행성 대관	곽재식	그래비티	읽은 책	2023.5.26	2023.5.26	2023.5.26
180	초월하는	우다영	조 허블	읽은 책	2023.5.28	2023.5.28	2023.5.28
181	체공녀 강	박서련	한겨레출	읽은 책	2023.5.28	2023.5.28	2023.5.28
182	이끼숲	천선란	자이언트	읽은 책	2023.5.30	2023.5.30	2023.5.30
183	한밤의 시	정보라	퍼플레인	읽은 책	2023.6.18	2023.6.18	2023.6.18
184	패스워드	마틴 폴	이 플레이타	읽은 책	2023.6.26	2023.6.26	2023.6.26
185	내 주위에	장 프랑수	(시공사	읽은 책	2023.6.28	2023.6.28	2023.6.28
186	불멸	권여선	에브리웨	읽은 책	2023.6.28	2023.6.26	2023.6.26
187	나쁜음자	권여선	에브리웨	읽은 책	2023.6.28	2023.6.26	2023.6.26
188	떡볶이 :	안김겨울	세미콜론	읽은 책	2023.7.18	2023.7.18	2023.7.18
189	각테일 러	조예은	안전가옥	읽은 책	2023.7.29	2023.7.27	2023.7.27
190	막 너머에	김준녕	허블	읽은 책	2023.7.29	2023.7.29	2023.7.29
191	종의 기원	김보영	아작	읽은 책	2023.7.31	2023.7.30	2023.7.30
192	과학철학	박이문	사이언스	읽은 책	2023.8.17	2023.8.8	2023.8.17
193	우리가 푸	김기창	민 민음사	읽은 책	2023.8.17	2023.8.17	2023.8.17
194	가족이란	최진영	박 민음사	읽은 책	2023.8.17	2023.8.17	2023.8.17
195	헤겔	피터 싱어	교유서가	읽은 책	2023.8.21	2023.8.21	2023.8.21
196	논리 - 철	호루트비히	책세상	읽은 책	2023.8.22	2023.8.22	2023.8.22
197	밤의 승리	이디스 워	민음사	읽은 책	2023.8.28	2023.8.28	2023.8.28
198	벗겨진 베	조지 엘리	민음사	읽고 있는	2023.8.28	2023.8.28	
199	물리와 철	베르너 하	(서커스(서	읽은 책	2023.9.1	2023.8.31	2023.9.1

200	생명은 어	김동광	공리	읽은 책	2023.9.1	2023.9.1	2023.9.4
201	부분과 전	베르너 하	(서커스(서	읽은 책	2023.9.1	2023.9.5	2023.9.5
202	자연은 언	패트릭 아	시공사	읽은 책	2023.9.4	2023.9.4	2023.9.4
203	자유로부	에리히 프	휴머니스트	읽고 있는	2023.9.5	2023.9.5	
204	익명의 독	이창현 유	사계절	읽은 책	2023.9.8	2023.9.8	2023.9.8
205	이중나선	-제임스 D.	공리	읽은 책	2023.9.9	2023.9.9	2023.9.9
206	소유냐 존	에리히 프	까지	읽은 책	2023.9.9	2023.9.9	2023.9.9
207	우아한 분	장피에르	에코리브트	읽은 책	2023.9.12	2023.9.12	2023.9.12
208	사소한 삶	피에르 마	민음사	읽은 책	2023.9.13	2023.9.18	2023.9.18
209	검은 꽃 (출	김영하	북북서가	읽은 책	2023.9.14	2023.9.14	2023.9.14
210	마음	나쓰메 소	문예출판사	읽은 책	2023.9.19	2023.9.19	2023.9.20
211	피로사회	한병철 김	문학과지식	읽은 책	2023.10.7	2023.10.6	2023.10.6
212	차라투스	트프리드리	휴머니스트	읽은 책	2023.10.7	2023.10.6	2023.10.7
213	니체 : 《차	정동호	책세상	읽은 책	2023.10.7	2023.10.6	2023.10.7
214	진흙발의	필립 K. 디	플라박스(읽은 책	2023.11.2	2023.11.2	2023.11.2
215	총 균 쇠 -	'재레드 다	(김영사	읽은 책	#####	#####	#####
216	겨울의 언	김겨울	웅진지식	읽은 책	#####	#####	#####
217	적과 흑	스탕달	북 지식의숲(읽은 책	#####	#####	#####
218	책 읽어주	베른하르	트시공사	읽은 책	#####	#####	#####
219	꿈의 해석	지크문트	돌을새김	읽은 책	#####	#####	#####
220	파견자들	김초엽	퍼블리온	읽은 책	#####	#####	#####
221	있을 법한	구병모	문학동네	읽은 책	#####	#####	#####
222	자신의 존	카밀라 팡	푸른숲	읽은 책	#####	#####	#####
223	설자은	금 정세랑	문학동네	읽은 책	#####	#####	#####
224	사라진 소	허주은 유	미디어창	읽은 책	2024.1.1	2024.1.1	2024.1.1
225	붉은 궁	허주은 유	시공사	읽은 책	2024.1.1	2024.1.1	2024.1.1
226	CODE 612	-미셸 뷔시	힘찬박스(읽은 책	2024.1.1	2024.1.1	2024.1.2
227	미키7	에드워드 (황금가지	읽고 있는	2024.1.2	2024.1.2	
228	고통에 관	정보라	다산책방	읽고 있는	2024.1.6	2024.1.6	
229	단어가 내	오정연	허블	읽은 책	2024.2.22	2024.2.22	2024.2.22
230	나인폭스	:이윤하 조	허블	읽은 책	2024.2.22	2024.2.22	2024.2.22
231	구름공장	-올리비아	바른박스	읽은 책	2024.3.5	2024.3.5	2024.3.5
232	당신이 그	손희정	마음산책	읽은 책	2024.3.5	2024.3.5	2024.3.5
233	라스트 젤	i청예	허블	읽은 책	2024.6.23	2024.6.23	2024.6.23

4
2
3
3
3.5
2.5
3
4
3
3
3
4
4
5
5
5
5
5
3
3
3.5
4
4
4
5 '방금 떠난 세계' (특히 마리의 춤과 로라)에서 한 페이지를 더 넘어가 '지구 끝의 온실'
4 단서는 이미 나와있다
3 가드닝이 어르신들에게 럭셔리하고 좋은 취미라는 얘기를 들었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
3
3
4 \n정보 지식 지혜를 설명하는 <출발>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과를 선택해 중·
5
4 144pg ; '인간이 말을 이해하는 과정을 알고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과 나의 심상이
3 162pg
3
2.5
3 9pg 123pg 141pg 222pg\n: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
3 페스트 흑사병은 엔테로박테리아의 일종인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병하는
3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n때로는 인생의 각
3 툭툭 튀는 비유나 은유 표현 등이 인상적이다
3
4 나에게 김겨울은 '믿고 읽는' 작가를 넘어 '믿고 사는' 작가가 된 것 같다. 북튜버 겨울서:
2.5 김겨울의 인생이 너무나 궁금해진다. 조각조각내어진 글과 영상으로 추측하는 수밖에
3 왜 안락사가 생각났을까
2
3 정세랑의 시선은 꽤나 통찰력있고 여러 방면으로 흘러가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따스하
3
3
3 멋진 일은 대개 두려움을 동반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 여정은 험난하다\n그를
5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 말하는 작가다. 일종의 전복이다. 다섯 번째 감각]이라는 제
3 강력한 열정 차분한 태도

3 한강의 문체는 신기하다.\n투명하고 강렬하게 선명한데 어느 것 하나 남지 않는다.\n마
2
3
4
3
3
3
3
3 눈길을 사로잡은 제목이라 펼쳤는데 역시나! 김초엽 작가의 책에서 따온 제목이란다
2.5 역사 속 이야기와 설화와 신화와 온갖 것들을 섞어 엮어낸다. 구슬을 꿰듯이 \n\n역사와
3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가 소설로 나온다면 이런 책일까
3
3 x-이경 && x-현석 : 특정 확률로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날이 다가온
3
3 꽤 낯설다.\n그저 담담하게 서술하면서도 감정이 그 색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5
4 sf와 설화 그 온갖 것들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글.\n익숙한 소재 클리셰를 벗어난 변주
3.5
3
3
3 나투라 논 파싯 살툼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n다윈이 하고자 했던 말.\n'자연에서 생
4
3 '인간의 재료가 달라진다면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도 바뀌지 않을까?\n\n인간의 재료
3 '데이터는 수리 영역이 아닌 언어 영역에 속한다. 분석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도구이고
4 세월의 흐름과 각각의 맥락에 따라 손상된 그 흔적의 기록 그 맥락을 고려한 수선.\n
3
2
3
3
4 5가지 C : 창의성 creativity 의사소통 communication 모방 copying 협력 cooperation 압
3
3
2
5
4
5
5
5
5
5
5
5
5
5
3
3
5
4
5 진리는 우리가 환상임을 망각한 환상이다
4 세 구성원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nsf이면서도 <침묵의 봄> 같기도 한 이 책
4
5

4
4
5
4
5
3 단순한 그러나 강렬한 열정. 욕망\n그리고 그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린
3 미국인들의 에너지 소비 행태 : 중독
3
4
5
5
3
3
3
3
4
3
4.5
3
4
5
5
5
5
4
5
3
3
3
2
3
4
5
5
3
3
3
3
3
3
5
3
3
4
2
3
3
3 헤겔의 일생 - 역사철학 - (자유관) 법철학 - 정신현상학 - 논리학\n\n헤겔 세계관의 근본
4 언어를 통해 사고에 한계를 긋는 것
2.5 여느 집이라면 그 안에 등지를 튼 이들의 삶을 담아내기 마련일 터. 거처란 표피에 인접
2.5
4

- 3 1. 생명을 정보로 보는 관점이 형성된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 추적 -> 하나의 내러티브로
- 4 하이젠베르크가 쓴 가장 철학적인 자서전\n\n- 현대 물리학에서 '이해'라는 개념 : "이해
- 3
- 2.5
- 4
- 3
- 3
- 4 과학은 종종 인내의 문제이며 항상 이성의 문제이다.
- 3 '나의 허세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 보자.\n
- 4
- 3 \n[선생님과 나]\n"이미 말한 대로 선생님은 언제나 조용했다. 침착했다. 하지만 때로는
- 4
- 4
- 4
- 4
- 4 43pg - "저자들은 기자에게서 두툼한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
- 5
- 2.5
- 3
- 3
- 4 나는 너의 일부가 될 거야. 어떤 기억은 뇌가 아니라 몸에 새겨질 거야. 너는 나를 기억하
- 5 비존재의 기준은 무엇인가. 살과 피와 뼈 혹은 만질 수 있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눈앞에
- 3
- 4
- 2.5 원경왕후 민씨 == 태종의 중전 == 세종의 어머니.\n\n세종 대가 배경인데 [경국대전]을 어
- 3
- 3 생텍쥐페리와 그의 작품 어린 왕자를 평행선상에 올려 놓는 작품
- 2.5
- 2.5 고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 4 국어학 SF
- 3.5
- 3 작가의 공학자적 삶을 구름 생성 과정에 빗대 묘사함.\n\nCloud가 구름이기도 클라우드C
- 3
- 4

!'에 '사이보그가 되다'를 섞은 작품\n어떠한 기승전결이 탁-하고 맞춰지면서 작가만의 작품 세계 :
들어내면서 거기에 애착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다. 비슷하게 옷장이나 책장 정리 등 청소가 있
등 교육과정에서 사회탐구는 통합사회+한국지리가 마지막이었던 나.\n철학을 좋아하고 법학에 곧
일치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n145pg ;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같아도 거기서 연상되는 주'

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치명적 전염병이다. 알베르 카뮈의 동명의 소설 페스트는 이 페스트가 다시 발병한 알제리 오랑시:
강물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n무언가를 찾아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

점으로 김겨울을 접했지만 김겨울이라는 사람의 그 깊은 세계는 그가 쓴 글과 책에서 드러난다고
길이 없다. 그의 머릿속 생각도 그의 과거도 전부다 시시콜콜 캐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뭐가 그렇

다. 비판적인 면도 있기가 하지만 너무나 따스해서 녹아버릴 것만 같은 건 기분 탓이 아닐 것이다..

할 때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n내가 지금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n\n처음에는 누
목에 걸맞게 어떤 작품들은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구의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다>와 <땅

·치 형형색색의 눈송이 같다. 손에 잡힐듯 잡히지 않고 칠한 것이 색소에 의해 불투명한 그림자 만을

·문자와 책이라는 주제와 형식 아래 기호적 세계관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n\n총체적이면서도 개

·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 쳇바퀴를 굴

·. 촉감마저 느껴지게 잘 그려낸다.\n\n1인칭 시점임에도 무서우리만치 타자화한 글.\n\n소설 속 내용 우

·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계층구조에 매달리는

·!가 달라지려면 일단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달랐지 않을까? 환경에 적응해 진화해 온 게 지금 인류

·축 compression\n\n린다 배리) "우리가 판타지 세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

∴ 역사를 통틀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변화 개념\hegel의 신념 : 역사에 모종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음

! 재구성\n : 01.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에 정보 개념 등장\n : operation research -> 과학 패턴 고?
에란 무엇인가?"에 할애함\n\n- '물리와 철학' 이라는 책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듯

· 얼굴에 알 수 없는 먹구름을 드리우는 때도 있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창문에 까만 그림자를 드

다. 이 책의 경우에는 "역사가 종족마다 다르게 진행된 이유는 환경의 차이 때문이지 종족 간 생물

학은 대신 감각할 거야. 사랑해.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함께 잊어버리자.\n\n파견자는 "매료와 증오를 보이는 것만을 일컬어서 존재한다고 하지는 않는다.\n\n<Q의 진혼> 내의 문장...감탄함

그 가운데에서 문제의식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한 챕터에서 지금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겠. 주인공도 마찬가지로였을 거다. 텃밭을 가꾸면서 그 콜로니에 더 애착을 갖게 됐을 거고 잔류

!심이 많지만 학교의 주입식 교육은 싫었던 나에게 적절한 책인 것 같다.\n\n철학과에 간다거나 철
변 정보(스키마)는 다를 수 있다.\n148pg ; '설명을 할 때는 상대방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n: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
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어렸을 때 한 번 이어 한창 코로나로 난리일 때 한 번 더 읽었었는데 고전 수
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n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n

생각한다. 표현 하나하나가 주옥같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쓰지 그가 읽어온 무수한 책과 작가들과 경
험게 힘들고 그럼에도 책으로써 버텨온 것일까.\n나를 닮았을 첫 음악은 뭘까 싶다.\n기억나는 건

그리고 역시 이는 여행을 다니며 보고듣고 느끼고 생각한 여러 조각조각을 풀어낸 이 에세이에서

구나 진다. 그러니 이길 때까지 싸우고 샅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n'또 내 자
> 밑에>에서는 시각을 <촉각의 경험>에서는 촉각을 표제작 <다섯 번째 감각>에서는 청각을 말한

무엇인가가 칠해졌다는 인상만을 남기고 사라진다.\n"사라지고 있는 박명 속에서도 결정들의 형상이

될 수도.\n\n상자: 현 시국과 묘하게 겹치는 배경. 상자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절없이 가게 된
위로 실화들이 스쳐지나간다. 웬지 익숙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마치 장르가 소설이 아니라 예사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 좋은 과학이 될
.니까. 아니 잠만 근데 과연 그게 유일한 경로고 정말로 최선이었을까?\n왜 한 가지 원인에도 여러

있다\n헤겔의 역사철학\n- 세계사란 자유 의식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n: 모든 사건이 자유라는 뜻

착화\n : 냉전 시기) 'system as organism' 개념 수립\n - 유기체 : 각 부분의 기능과 서로 다른 부분들

리우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져버리긴 했지만." <- 25pg\n\n"나를 만나도 아마 당산

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n\n46-47pg : 책 내용 요약\n\n궁극 원인 : 2

· 동시에 품고 나아가는 직업"이다. "무언가를 꼼찍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불태워버리고 싶을 '

| 보였다." 해가 뜨기 전 완연한 어둠에 희미하게 불빛인지 연기인지 눈보라인지 모를 것이 초점에

린 그 과정에서 운 나쁜 일들을 계속 겪는다. "왜 이렇게 됐지" 싶은 일들 말이다. 절망 속에 포기하
세이인 것 마냥 느껴지게 만드는.\n그럼에도 마냥 실화같지 않고 픽션같이 느껴지게도 하는 오묘한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당신이 응시하는 모든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연선택 적자생존의 결과가 과연 유일무이하고 최선인 걸까?\n\n'어떤

목표를 향해 진행되었다\n: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필연적이다\n\n헤겔의 법철학\n- 자유는 사회?

과의 관계가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 지배되도록 구성된 서로 다른 부분들로 이루어진 구조 / 기능

신의 어딘가에는 외로움이 남아 있을 거요. 나에게서는 당신을 위해 그 외로움의 뿌리를 끄집어낼 만

식량 생산\>> 총 균 쇠: 근접 원인\49pg - "문자라는 현상은 다른 중요한 인과관계 즉 어떤 사

만큼 증오해야 합니다.\n\n"나는 지상으로 가고 싶은 것일까. 지상을 얻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

데 또한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다.\n다만 생각할 지점은 있었다.\n281pg -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 설

다.\n\n.....\n\n\n몇시간을 뒤척이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파편 때문에 몸을 일으켜 핸드폰
|무니케이션과 콘텐츠 커뮤니케이션\n193pg ; '감정적인 화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갈 세계가 몰락한다 하여도 우리들 중 하나는 그 세계를 다시 세울 능력이 있다. 산과 강 나무와 잎
으로 종합하고 심리 묘사 측면을 위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n\n이 책 제목 페스트를 질병

분만 조금조금씩 굶어보고 있기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 생각들과 물성 없는 그 내면이 너무나 궁금
으로 바이올린을 접했다. 피아노를 더 오래 배웠지만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으로 했었고 사람들도

아니라 감정을 견딜 비위라는 생각이 든다.\n\n부딪친다고 생각보다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 모르겠
건어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테드 창이 그의 작품 '숨'에서 그의 반짝이는 창조한 아이디어로

잡히는 느낌이다.\n책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지는 것은 있지만 분명한 형상을 띠는 것은 아

고 상자를 열고나서 드는 건 허탈함이다. 무엇인지 정확히 서술되어있지는 않지만 웬지 알 것도 같

≡ 생물에게는 당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n\n에세이 같기도
!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꿈꿔요. 그런 욕망 중 쉽게 승인되는 것들은 거

덕 역사적 힘에 의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할 자유?\n- 개인은 오히려 의무를 걸머지는 데서 스스로

에 의해 결정됨\n : 과학지식 생산의 특징적인 방식 중) 초학제적 연구방식 - 비상상황에서 국가에

큰 힘은 없으니까요. 당신은 이제부터 밖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내 집 쪽으로는

상과 발명이 전해지는 용이성에 지리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n\n84pg - "

그 지상을 쫓는 사람을 갈망하는 것일까." \n\n"그러나 뭔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콕콕 찌르는 듯한

경할 때 외적인 것만으로 스테레오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남말하거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메모장을 열어 조각글을 기록했다.\n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뿌리와 꽃 자연의 모든 영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영혼에서 나오기 때문이
테스트로만 볼 수 있을까 한다. 본문에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나와 바이올린을 더 잘 매칭시킨다. 어쨌거나 그 악기들 덕에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전자 악기를

으니까 해보자. 겪어보고 판단하자. 자신의 시각을 기르자. 안목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품질 관리
글을 전개했다는 점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문체나 전개 방식은 비슷하다. 글에서 전해

·니다. 뒤에 대한 묘사인지 무엇을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지만 선명하게 그려지는 2

·은 그것.\n\n귀향 : '나는 쓰지 않는다.' 이 한 문장만이 계속되던 와중 떠올리는 이 나라의 오늘을 3

· 전기 같기도 한 이 책은 작가 인생을 풀어낸 블로그나 브런치 글처럼 보인다. 이제 그가 추앙하려
· 대한 시장을 이루죠. 하지만 승인받지 못한 욕망들도 결국은 어디론가 흘러들어 조그만 웅덩이를 4

해방을 누린다. -> 실제적인 자유로 해방된다. 해방이란 한낱 자연적 출동에 얽매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의해 과학자와 전문지식이 동원 및 징발되는 과정에서 기인함 (거대과학의 특징과 유사) + 과학역사

≡ 발길을 돌리지 않게 되겠지요." <- 30pg\n\n"과거에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엔 그

기후 자원 면적 지형 고립성 등 지리적 조건이 폴리네시아 여러 사회의 인구 규모에 영향을 주었.

· 느낌이 있었다.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뉴런의 존재가 감각되면서 뻐죽한 어떤 것이 그 신경세포들

대상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져 괜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n무례한 사고임에도 (

. 뒤척이는 동안 안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정도는 됐다. 정도가 넘어섰다. 이럴 때 내가 하는

다. 영혼의 본질은 영원이며 그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본질은 대개 사랑하는 힘과 창.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페스트 앞에서 무사하지 않으니까요.

를 좋아한다. edm은 싫어하는 내가 신디사이저는 좋아하는 이유다.\n내가 직접 찾아들었던 첫 k팝

| 요원이 있다. 그 기준이 정밀하고 체계적일수록 삶에 실수가 줄어든다. 안목을 갖고 선택할 것이
|져 오는 무게감이 있다. 그의 언어는 그의 글은 우리의 일상이 정말 보편적이냐는 시선에서 출발하

그림은 글씨....없을 듯 하다.\n에세이 같기도 소설이기도 시 같기도 한 이 책 내용은 한강의 이러한

증언하게 만든 그 일들. 그 사람. 그리고 그 증언할 에세이의 제목인 귀향.\n\n가장 큰 행복 : 기후위

고 했던 데이비드 스티 조건의 일생을 곁들인.\n\n마지막 챕터로 갈수록 알게 된다.\n\n이 제목과 작가
만들어요. 그런 갈망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n\n'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 혹은

의 해방. \n-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사회가 빛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체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욕

1의 군사화 < by 냉전 합리성\n\n 전쟁 이후 과학과 기술의 적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

.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얹게 만드는 법이네. 나는 훗날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고 이는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정치조직의 차이로 이어졌다." \n\n 다만 근접 요인은 근본적인 의문

를 사이를 헤집으며 태린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뒤섞어버리는 느낌. \n\n "한 존재의 과거와 현

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미약하게나마 생각되어 머리가 복잡해져도 그저 으레 내뱉고마는.\n기존!

건 독서다. 알라딘 책베개 위에 놓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n새벽-정오-황혼으로 이어지는 책이

조력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어진다. \n: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
."의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테다. 이 문장에서 페스트의 동의어는 두려움 역병 아

음악이 뭐냐고 묻는다면 리블리즈라 말하겠다. 밴드 음악에는 루시가 있고 팝 음악에는 테일러 스

너무 많다. 왜냐면 삶은 대부분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인상은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현명하
게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보편적인 것이 특별할 것 없어보여도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한

기 노동자 파업 문제 바이러스 등 온갖 내외부적 문제들로 인한 희망이 제로에 수렴된 섯다운 상태

·가 책 전반에 걸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된다. \n분류학의 기술을 실행하고 세상이 뒤바뀌는 -
은 진짜 내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란 대체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서 한 사람의 뼈를 C

؛망을 조장한다는 것. (ft. 브래들리)\n- 국가 : 객관적 정신\n\n헤겔의 정신현상학 \n- 현상 != 존재\r

적 전망 및 믿음 증가\n\n: 02. 정보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개념 수립 -> 생명 인식 변화\n - 냉전 시:

물리고 싶네. 나는 지금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참기보다 차라리 외로운 지금의 상태로 버텨가고

- 직접적인 이점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집중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n 132pg) \n 총 균 쇠는 어디

재에 대한 서사를 인식하는 것 그게 자의식이야." \n\n"인간에게 자아의 상실은 인간성의 상실이다

부터 살고있던 사람을 보면서 침입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기존 거주민의 태도에 기분 나빠하고 괜

니 시간대에 맞춰 읽어야겠다.\n<출발>을 해서 <새벽>으로 들어온 지금 시간은 새벽 4시다. 니체

파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들이
·닌 역경 뭐 이런 것이지 않을까. 좀 더 비틀어보자면 희망 열정?\n\n이 책에서는 페스트에 대응하

·위프트가 있다. 이들은 여전히 내 플레이리스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를 미화시키며 한 겹 덮어

하게 살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목을 기르는 과정에서 배우고 적용할 것들이
다. 어떤 것의 존재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궁금해하고 계속 두드리면 보일 것이라고 우리가

㉞. 그 상태에서 그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먼 미래. 그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미래를 가늠하며 마

지진- 일로 본인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마저도 특유의 낙천성으로 더 크게 명명하고 분
기루게 되는 걸까요.\n\n'욕망의 형태 역시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마치 조각을 빚듯 구체화하기 전(

1: 정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모습인지 연구하는 학문\nn: 절대지에서 정점에 이르는 의식 형태를 향함

기 이루어짐\n : 사이버네틱스 ? : 기계와 생명체 모두를 제아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싫네. 자유 독립 그리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찬 현대에 태어난 우리는 그 대가로 모두가 이 외로움을

에서 기원했는가?\n: 농경과 목축이라는 식량 생산 방식은 총과 균과 쇠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0

이 찢려 하고 기존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멋대로 구는 모습은 과거 역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보다도 임마누엘 칸트보다도 더한 인간인 건가. (뒤척였을 뿐이지만 잤다고 치고.)\n1장이 마르쿠스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는 인물들의 다양한 태도가 보인다.\n\n도 피하는 인물로는 기자 랑베르가 있다. 그는 취재차 왔다

|씩운다.\n\n작곡이나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재능은 없는 것 같지만 배워보고

많지만 그 첫 번째 대상이 자기 자신이길 바란다.\n\n나의 평범함이 혼자 갖고 있을 때는 초라함 등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가 낯설게

주하는 충분한 이별. 이별 후에도 사랑은 가능할 테니 언제까지라도 그의 거리를 걸을 수 있을 것

류하다 못해 우생학자로서 우수함에 매달렸던 그 과정이 치명적인 발견 즉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
게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죠.\n\n'내가 어떤 존재다 라는 인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 발전\mathbf{n}: 의식의 절대 과정이 필연적 과정\mathbf{n}의 의식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동하며 씬 없이 ;

!(달린 세계 담론) -> 은유와 상징으로 생명 자체를 재기술 & 순환적 피드백 기반\n -<달린 세계 담

맛보아겠지." <- 51pg\n\n"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 따로 분류되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나? 세

기었다.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더 많은 인구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하고 사회적으로 겨

:\n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도와주러 왔다며 안심시키려 하는 그 오만과 편견 sf 소설이지만 현

≧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이다.\n이거 좀 맘에 안든다. 침대에서 나오려면 일단 침다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n'같은 것이기에 "나는 이 도시와는 관련이 없어"하며 빠져나가기 위해 애쓰며 급기야는 밀항까지 사

길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꺼내놓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당신의 개성이 발현되!

같다는 마무리. 흐름 속에서 엿보이는 감정선이 투박하게 그려진다.\n\n귀환 : 귀향과는 또다른 밀

다"는 것으로 이어졌다.\n\n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컴퓨터의 제안을 봤더니 혼돈만 남은 것

참된 앎을 찾도록 강요되기 때문\n- 의식 -> 지각 perception -> 오성 understanding \n: 지각 :: 의식이

▶론 특징>\n 1. 공학적&수학적 기법들 + 컴퓨터 기술과의 결합\n 2. 추상적인 형식화 > 경험적

상에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진 인간은 없네. 평소에는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지. 적어도 그냥 보통 사

||층화한 사회 또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혁신화한 사회로 이어진 주된 연결 고리를

실이나 다름없다.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 \n무례하기 짝이없음에도 본인들이 나머지와 다르게 고

에서 들어가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바쁘다던가 침대에 들어가는 게 힘든 사람들은 어쩔 것인가. 3

\n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머 알폰스 벅에 의해 저 밑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느낌을 받고 데미안 버
|도한다. 저항하는 인물로는 행정 서기 그랑이 있다. 진압을 위해 일종의 워라벨을 포기하고 보건의

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모양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기보다는

!. 도망치듯 떠난 우주에서 다시 떠났던 것들을 향해 돌아가는 길.\n\n종언 : 하나둘씩 빛을 잃어 멀

!이다.\n\n미묘한 차이들을 "어류"라는 한 단어 내에 몰아넣고 있었다.\n\n그러니까 어류는 존재하지

대상을 보편적 성질에 따라 분류\n: 오성 :: 의식이 자신의 법칙을 실재에 부여\n- 자의식 : 자기 바

|이고 상황 지어진 지식\n 3. command & control\n : transition & shift -> 'information' 개념 탄생\n

사람들이라고. 그러던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 방심하면

추적해본다.\n\n134pg)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과 균과 쇠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

침대에 못 누워 복잡한 심경일 텐데 배제 당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대에서 나오는

||아트리체에 의해 다시 회복한다. 데미안과의 이별 이후 그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며 어느 날은
||에서 봉사한다. 순응하는 인물로는 신부 파늘루가 있다. 페스트를 신의 형벌로 이해하고 신의 뜻(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창조'가 아니다. 당신이라는 하나뿐(

종해가는 시대에 사고로 머리에 칩을 이식하게 된 인간이 사람으로 죽기 위해 뇌내 칩 제거술의

않는다. 그러나 이 파괴와 상실이 혼돈의 일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

같은 대상을 필요로 하면서도 대립함 \nL 진리 발견하는 이론적 문제 -> 세상 바꾸는 실천적 문제!

- 유기체 :: 메시지 == 정보 (ft. 위너)\n ; 메시지 = 음의 엔트로피 (: 질서의 단위 / 엔트로피는 무질

변 안 된다는 말이네." <- 94pg\n\n"아마 죽을 때까지 그 한을 품고 갈 거야. 하지만 난 그들에게 복수

다.\n첫 번째 연결 고리 - 가장 직접적인 것 : 소비할 칼로리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 행동은 잠을 자고 깨서 침대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고싶지 않지만 어쨌든 나가는 것

은 알인 세계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새가 날아가는 대상인 아브락사스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게 순응해야 한다고 설교한다. 의외로(?) 환영하는 인물도 있다. 아웃사이더 코타르가 그 인물인데

인 특별한 인간을 발견하는 일이다. 새로움은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비롯된다. \n:

전문가 (생사도 모르는)를 찾아가는 여정. 그 과정에서 별 소득은 없었지만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이다. 죽음의 이면인 삶. 부패의 이면인 성장.\n그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보고있는 모든 것

로의 이동\n:: 자의식의 대상을 또다른 자의식으로 만듦 사회적 삶으로부터 성장\nn- 자의식적 존재

!서의 단위)\n\n사이버네틱스 담론 고도화 ->\n : 03. 생명이 암호풀이로 전환된 과정\n : 분자생물

하지 않았네. 아니 생각해보면 나는 한 개인에 대한 복수 이상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지. 나

있다는 뜻.\n\n176pg)\n\n요약하면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식량 생산이 독자적으로 시작되었

것이지 않은가. 나처럼 지금 잠을 못자고 기대어 책을 읽고 있는 인간은 책 덮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

그 아브락사스를 언급하며 피스토리우스와 대화가 이어진다. 본래의 삶의 목표로 가는 길에서 방황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고립감을 느꼈지만 페스트 창궐 이후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바다에는 소금이 녹아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별을 찌면 소금은 각

== 인격체\n: 인정을 필요로 함 (인정 욕구 : 상호적)\n: 진정한 자유 :: 합리적 선택에서 옴\n(이성 :

학의 출현 (거대기업이 인간 과학 -인간 개량 & 사회 통제 -기획의 일환으로 탄생시킴) -> 생명에 다

는 그들을 증오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들로 대변되는 인간이란 존재를 증오하는 법을 익혔네. 니

고 그것도 지역마다 시기가 크게 달랐다. 이웃한 일부 지역의 수렵 채집민은 그 핵심 지역으로부터

이게 되어있다.\n개인적인 상황을 떼놓고 보면 꽤나 도움이 된다.\n하긴 500쪽이 넘는 이 책을 이 자

랑 하던 싱클레어는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새가 된다. 뿐
비로소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인물로는 의사 리유와 보건대를 꾸린 타루가 있다. 모

을 찾게 된다. 물 안에서 흐려졌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별으로 가자.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

길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부터 오늘을 대변하는 글들을 지나 sf의 세계를 그린

!로 검토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n\n\n"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있다."\n"긍정?

지성의 본질적 성격)\n- 결론]\n* 궁극적 실재 : 정신\n* 자신이 알고자 하는 곳은 그 정신임을 정신

|한 분자적 관점 수립 & 스스로를 커뮤니케이션 과학으로 기술 (생물 - 정보저장 / 분자 - 검색체계 :

는 이게 내 식대로의 복수라고 생각하네." <- 102pg\n\n"나는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이지 아무것도

| 식량 생산 방법을 배웠고 기타 이웃 지역의 종족들은 그 핵심 지역의 식량 생산자로 대체되었다.

리에서 다 읽겠다는 생각이라면 새벽과 아침 그 어디쯤에서 마지막으로 알림이 울릴 시간까지도

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도 있다. 크나우어라는 인물이다. 그 인물은 싱클레어에게 의지
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고 이 기록은 소설의 실마리가 된다. 의사 리유는 연대와 성실성을 강조하

정을 거쳐야만 당신의 각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 당신은 소금이다.\n\n확신만 있으면 정체가 되고

!! 글들.\n\n'최악은 지나갔다는 안도와 곧 진짜 최악이 오리라는 불길한 예감 사이에 이 세계는 존

덕 환상을 갖는 것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E

!이 깨닫는 순간 == 절대지에 도달하는 순간\n\n헤겔의 논리학\n- 목표 : 진리? 절대 이념의 필연성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인간은 거스를 수 없이 타고난 가변적인 존재임을 절감했다." <- 121p

이 경우에도 시기가 크게 달랐다. 끝으로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적합한 지역에 살면서도 일부

침대에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 침대에서 나갈 거다. 사명을 위해서. \n이래놓고.

했으며 싱클레어에게 놀랍고도 멍청한 질문들을 한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그를 통해 풀려야 할 어떤 인물이다. “결국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권태로 인해 무너진다.”는 문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

고 불확신만 있으면 용기를 잃는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n\n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3. 널 시야 바깥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n질서는 과연 \n모든 자 rulere 뒤에는

;\n\n[부모님과 나]\n"뭐라고 해도 말이야 내 여태껏 지켜보니 자기 입으로 죽겠다 죽겠다 입버릇기

. 종족은 선사시대에 농경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했고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지도 않았다. 그들

사람들 속에서 방심하지 않고 묵묵히 본인 할 일을 잘 해나가는 인물인 것이다.\n\n이

저항을 만난다. 늘 나를 밀어낸다는 기분이 들고 나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